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9.02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채권시장은 계속 팔리는데 정작 위험을 재는 지표는 태연하다 — 이번 주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이상한 조합이다.

지난주 한눈에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정부가 장기로 돈을 빌릴 때 매기는 이자율)는 4.77%로 한 주 사이 6.3bp(1bp=0.01%포인트) 올랐고, 2 년물은 11.1bp 뛰었다. 두 금리 모두 상승 전환 신호를 내며 매도세가 이어졌고, 선물시장은 9 월 16 일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69%까지 반영 중이다 — 지금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다.

반면 위험을 재는 다른 지표는 딴 얘기를 한다. 시장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는 지난 거래일(9/1) 하루 3.4% 반등했어도 1 년 기준 하위 8.8%에 머물러 있고, 신용위험이 큰 기업들의 빚 부담을 보여주는 하이일드 회사채 가산금리(HY_OAS)도 하위 0.4%로 역대급으로 낮다. 국채금리는 뛰는데 주식·회사채 시장은 겁먹지 않은 셈이라, 이 괴리가 얼마나 더 갈지가 관전포인트다.

중국은 8 월 차이신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50 을 넘으면 경기 확장)가 51.5 로 7 월 50.9 에서 올라 관영 지표 반등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국 증시(CSI300)는 이제 니케이·S&P500 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져, 자국 경기보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더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명암이 갈렸다. 8 월 수출은 983 억달러로 전년대비 68.7% 늘어 반도체 주도 회복이 뚜렷했지만, 같은 주 발표된 소매판매는 전월비 -2.4%로 내수는 식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려 예상에 부합했지만, 국채 10 년물과 3 년물 금리차는 1 년 기준 상위 99.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통상의 추가 인상 기대보다는 장기물에 별도로 붙는 프리미엄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 꼭 볼 것

최대 분수령은 9 월 4 일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고용(NFP)이다. 시장은 5 만 5 천명 증가(전월 2 만 3 천명 감소)를 예상하는데, 예상을 웃돌면 9 월 인상 프라이싱(69%)이 더 굳어지고 밀돌면 채권 매도세에 제동이 걸릴 여지가 있다. 9 월 3 일엔 미국 ISM 서비스업 PMI(예상 54.1)와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전월 50.4)도 나오는데, 이번엔 중국 지표의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클 전망이다.

최근 한 주 채권형 펀드의 순유입 비중은 46.9%에 그쳐 자금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국채금리 상승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26	미국	내구재 주문	0.5	0.5	1.1	전월비 %	7월 내구재 신규주문은 전월 대비 1.1% 늘어난 3,393억 달러로 6월(수정치 기준 +0.5%)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는 항공기 부문 급등이 만든 그림이다. 운송을 제외한 코어 주문과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핵심 자본재 주문은 오히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출하와 수주잔고는 전체적으로는 속도를 유지했지만 핵심 자본재 출하만큼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종합하면 수요가 꺾였다기보다는 확장 속도가 느려지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심층]
08/26	미국	PCE 물가	0.1 3.6	-0.1 3.7	0.2 3.7	전월비 % 전년비 %	한 줄 요약: 7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상승 압력이 재확인됐고, 물가 효과를 제거한 실질 소비 증가율은 사실상 멈췄다. 다만 항목별 기여도와 전월 대비 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번 발표에 빠져 있어, 재가속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잠정적 경계 강화로 읽는 편이 맞다. [심층]
08/26	미국	GDP(2차잠정)	1.5	1.5	1.5	전기비 %	2026년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2차 추정치는 연율 1.5%로 1분기 2.1%보다 둔화했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대목은 헤드라인이 아니다. 재고와 순수출, 정부지출을 제외한 민간 내수 최종매출은 속보치 3.9%에서 4.2%로 오히려 상향됐고, 물가는 국내총구매물가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근원 PCE 물가세 계열이 모두 위로 수정됐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주된 걱정거리인 지금 국면에서는 내수가 탄탄하고 물가가 더 오른다는 조합이 편한 뉴스는 아니다. [심층]
08/26	미국	개인소비지출	0.1	0.3	0.2	전월비 %	미국 PCE 전월비 0.2%로 예상(0.1%) 상회, 이전(0.3%) 대비는 둔화 — 소비 모멘텀 완만 지속, 인상 경로에 부담 크지 않음
08/26	일본	서비스물가(SPP)	—	—	3.6	%	일본 기업향 서비스가격, 헤드라인은 3.6%로 올라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3%대 초반 흐름이 그대로다 [심층]
08/27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8.0	206.0	203.0	천명	8월 22일로 끝난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는 신호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
08/27	일본	실업률	2.5	2.5	2.4	%	일본 7월 완전실업률이 2.4%로 낮아지며 저실업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하락을 이끈 것은 취업자 증가가 아니라 실업자와 취업자가 함께 줄어드는 노동력인구 축소이며, 이는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뒤집을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시키는 쪽에 서는 신호다. [심층]
08/27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CPI, 신선식품 제외)	1.7	1.9	1.8	전년비 %	도쿄 CPI(신선식품제외) 전년비 1.8%로 예상(1.7%) 상회, 이전(1.9%)보다는 둔화 — 인플레 앵커링 유지, BOJ 매파 기조 지지
08/27	일본	유효구인배율	1.19	1.18	1.18	배	일본 유효구인배율 1.18배로 예상(1.19배) 소폭 하회 —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미세 완화, BOJ 인상 경로 영향은 제한적
08/27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CPI, 종합)	—	2.0	1.9	전년비 %	도쿄 CPI 종합 전년비 1.9%로 이전(2.0%) 대비 소폭 둔화 — 신선식품제외 지수와 온도차, 헤드라인은 완만한 디스인플레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27	한국	기준금리 결정	3.0	2.75	3.0	%	한국 기준금리 3.0%로 시장 예상 부합 — 8월 인상 이후 동결 기조 확인, KR10Y_3Y 과열은 정책축보다 텀프리미엄 요인 시사
08/28	미국	소비자심리(미시간대)	51.0	51.0	51.7	p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51.7p 로 예상(51.0p) 상회 — 소비 심리 저점 확인, 견조한 소비 흐름과 궤를 같이함
08/28	프랑스	소비자물가(CPI, 속보)	0.7 2.4	0.6 2.1	0.7 2.4	전월비 % 전년비 %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ICP)는 전년동월대비 3.3%로 7월 2.9%에서 뚜렷하게 올라 202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속의 진원은 에너지이며, 코어물가와 서비스물가는 오히려 소폭 낮아져 유럽중앙은행(ECB)의 매파적 동결 기조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결과다. [심층]
08/28	독일	실업률	6.4	6.4	6.4	%	유로존 7월 실업률이 6.4%로 전월과 정확히 같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신호가 사실상 없었고,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동결 기조를 그대로 뒷받침한다. [심층]
08/28	독일	실업자 수 변동	5.0	6.0	4.0	천명	독일 실업자 수 4천명 증가로 예상(5천명)보다 적게 늘어 — 고용시장 완만한 약화에 그쳐 ECB 동결 기조에 부담 없음
08/28	프랑스	GDP(확정)	0.2	0.2	0.0	전기비 %	프랑스 GDP 확정치 전기비 0.0%로 예상(0.2%) 하회 — 성장 정체 확인, 유로존 내 프랑스 성장 부진 재부각
08/28	유로존	경기·소비심리	-5.2	-6.1	-5.3		8월 유로존 경제심리는 방향 전환을 두 달째 이어갔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가격대기가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동시에 확인시켰다. [심층]
08/30	일본	산업생산	-0.7	1.9	0.1	전월비 %	일본 산업생산 전월비 0.1%로 예상(-0.7%) 상회했으나 이전(1.9%) 대비 크게 둔화 — 생산 모멘텀 약화 뚜렷
08/30	일본	대형소매점 판매	—	-1.0	2.0	전년비 %	일본 대형소매점 판매 전년비 2.0%로 이전(-1.0%)서 반등 — 유희구인배출 미세 둔화와 대비되는 내수 소비 강세 신호
08/30	한국	산업생산	4.4	5.8	3.6	전년비 %	7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소비·서비스가 일제히 꺾이며 확장 동력이 끊겼음을 보여주는데, 그 성격은 재화 수요의 냉각이며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최우선에 둔 한국은행의 현재 정책판단 속에서는 완만한 호재로 읽힌다. [심층]
08/30	한국	소매판매	—	2.7	-2.4	전월비 %	한국 소매판매 전월비 -2.4%로 이전(2.7%) 대비 급반전 — 내수 냉각 뚜렷, 8월 수출 호조와의 이분화 심화(하우스 뷰 재확인)
08/31	독일	소비자물가(HICP, 속보)	0.3 3.1	0.9 2.8	0.2 2.9	전월비 % 전년비 %	독일 HICP 속보 전월비 0.2%·전년비 2.9%로 각각 예상(0.3%·3.1%) 하회 — 인플레이 재가속 우려 완화, ECB 동결 여력 확대
08/31	중국	제조업 PMI(NBS)	49.6	49.2	49.8	p	8월 중국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에서 49.8로 올라 위축 국면 안에서 하락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주문이 48.5에서 50.6으로 임계치인 50을 다시 넘어섰고 생산과 신규수출주문, 출고가격도 나란히 50 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와 저물가를 걱정하던 국면에서 하방 압력이 한 단계 덜어진 결과로 읽힌다. [심층]
09/01	미국	구인·이직(JOLTS)	—	—	—		2026년 7월 미국 구인·이직·해고 통계(JOLTS)는 채용과 이직이 함께 줄어드는 '저채용·저해고' 국면으로의 회전을 둔화를 보여준다. 구인 건수 반등이라는 표면적 지표만 보고 노동 수요가 되살아났다고 읽어서는 안 되며, 이번 발표는 연준의 추가 인상 논거 가운데 노동시장 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심층]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9/01	프랑스	제조업 PMI 확정	51.5	51.5	51.1	p	프랑스 제조업 PMI 확정 51.1p 로 예상(51.5p) 하회 — 확장 국면은 유지되나 모멘텀 둔화
09/01	독일	제조업 PMI 확정	54.1	54.1	54.3	p	독일 제조업 PMI 확정 54.3p 로 예상(54.1p) 상회 — 제조업 확장 견조, 유로존 내 독일 우위 재확인
09/01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	52.8	52.8	52.7	p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 52.7p 로 예상(52.8p) 소폭 하회 — 확장세는 유지, 미세 조정 수준
09/01	중국	제조업 PMI(Caixin)	51.0	50.9	51.5	p	중국 Caixin 제조업 PMI 51.5p 로 예상(51.0p) 상회 — 관방 PMI 반등과 함께 제조업 반등 재확인(하우스 테제 지지)
09/01	일본	제조업 PMI 확정	55.1	55.1	54.9	p	일본 제조업 PMI 확정 54.9p 로 예상(55.1p) 소폭 하회 — 확장 국면 유지, 속도치 대비 미세 둔화
09/01	한국	제조업 PMI	—	53.1	52.3	p	한국 제조업 PMI 52.3p 로 확장 국면 지속 — 8 월 수출 서프라이즈와 궤를 같이하는 대외수요 견조 신호
09/01	한국	무역·수출입	30.74	30.39	34.75		8 월 수출은 하루 평균 44 억 7 천만 달러로 7 월의 꺾임을 되돌리며 4 개월 연속 40 억 달러대를 지켰고,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이번 지표로도 유지됐다. [심층]
09/01	영국	주택가격(Nationwide)	0.1 2.0	0.1 1.8	0.2 1.6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Nationwide 주택가격 전월비 0.2%로 예상(0.1%) 상회, 전년비는 1.6%로 예상(2.0%)보다 낮아 단기·연간 흐름 엇갈림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02	미국	공장 주문	0.6	-0.3	전월비 %	전월비 예상 0.6%로 이전 -0.3%에서 반등 전망 — 반도체 주도 수요확장이 자본재 발주로 확산되는지가 관전포인트다.
09/03	미국	종합 PMI(S&P) 확정	56.0	56.0	p	예상 56.0p 로 이전과 동일 — 확장세가 정체 없이 유지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확정치다.
09/03	미국	서비스업 PMI(ISM)	54.1	54.1	p	예상 54.1p 로 이전과 동일 전망 — 헤드라인보다 고용·신규주문 세부지수의 방향이 관전포인트다.
09/03	미국	서비스업 PMI(S&P) 확정	56.8	56.8	p	예상 56.8p 로 이전과 동일 — 예비치 대비 하향 수정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확정치다.
09/03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5.0	203.0	천명	예상 20.5 만건으로 이전 20.3 만건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고용모멘텀 균열 조짐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09/03	미국	무역·수출입	-90.0	-73.3	십억\$	예상 적자 900 억달러로 이전 733 억달러 대비 확대 전망 — 달러 약세 국면에서 적자폭이 더 벌어지는지를 본다.
09/03	유로존	서비스업 PMI 확정	51.7	51.7	p	확률가중: EURUSD 중립, PMI 단독으로는 방향성 낮음 · 관전포인트: 확정치보다 EZ CPI 와의 조합 해석이 핵심 (동일 시각 발표) [시나리오]
09/03	독일	서비스업 PMI 확정	48.5	48.5	p	예상 48.5p 로 이전과 동일 — 50 하회 위축 국면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확정치다.
09/03	유로존	종합 PMI 확정	52.1	52.1	p	예상 52.1p 로 이전과 동일 — 확장세 유지 여부와 확정치 하향 수정 폭을 본다.
09/03	중국	서비스업 PMI(Caixin)	—	50.4	p	확률가중: AUDUSD/Copper 확률가중 소폭 약세 편향 (Miss 시나리오의 임팩트가 Beat 대비 큼 — 비대칭 리스크) · 관전포인트: 50.0 (확장/수축 경계선) — 특히 이번 발표는 3 개 PMI 중 가장 시장 임팩트 큼 [시나리오]
09/03	일본	종합 PMI 확정	—	53.4	p	확률가중: USDJPY 중립~미세 약세 방향(엔), 순수 PMI 단독 임팩트는 제한적 · 관전포인트: USD/JPY 심리적 라운드 레벨 부근 반응 강도, JGB 10Y 낙폭/상승폭 3bp 초과 시 유의미 [시나리오]
09/03	일본	서비스업 PMI	—	52.3	p	예상치 없이 이전 52.3p — BOJ 매파 전환 국면에서 서비스 확장세가 유지되는지가 관전포인트다.
09/04	미국	비농업 고용(NFP)	55.0	-23.0	천명	예상 5.5 만명으로 이전 -2.3 만명 감소에서 반등 전망 — Fed 9 월 인상 프라이싱(69%)을 더 굳힐지가 관건이다.
09/04	미국	실업률	4.1	4.1	%	예상 4.1%로 이전과 동일 전망 — 인상 우세 프라이싱 속 고용시장 이상신호 여부를 확인한다.
09/04	독일	제조업 수주	0.3 —	3.1 9.9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예상 0.3%로 이전 3.1% 급증분을 반납할 전망 — 전년비 9.9% 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한다.
09/04	영국	종합 PMI	—	51.6	p	예상치 없이 이전 51.6p — 완만한 확장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본다.
09/07	독일	산업생산	—	0.2	전월비 %	전월비 예상치 없이 이전 0.2% 증가 — 제조업 수주 개선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09/07	유로존	GDP(확정)	0.4 —	0.4 1.0	전기비 % 전년비 %	전기비 예상 0.4%로 이전과 동일, 전년비 이전 1.0% — 예비치 대비 수정폭이 관전포인트다.
09/07	일본	경상수지	—	-92.3	십억엔	예상치 없이 이전 -92.3 십억엔 — 엔 캐리·수입물가 부담이 경상수지에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09/07	일본	GDP(2 차 잠정)	—	0.3	전기비 %	전기비 예상치 없이 이전 0.3% — 1 차 잠정치 대비 상향·하향 수정 여부를 본다.
09/07	한국	GDP	— —	0.6 3.7	전기비 % 전년비 %	전기비 이전 0.6%, 전년비 이전 3.7% — 예상치 없이 확정 발표, 8 월 수출 호조가 성장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09/07	영국	주택가격(Halifax)	— —	0.0 0.1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이전 0.0%, 전년비 이전 0.1% — 예상치 없이 정체 국면이 그대로 지속되는지만 확인한다.
09/08	중국	무역·수출입	—	112.5	십억\$	예상치 없이 이전 흑자 1,125 억달러 — Caixin PMI 51.5 반등이 실제 수출 실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전포인트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08	일본	로이터 단칸(비제조업)	—	28.0	p	예상치 없이 이전 28.0p — BOJ 매파 전환 속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얼마나 견조한지 확인한다.
09/08	일본	통화량(광의유동성 L)	—	2330.6	조엔	예상치 없이 이전 2330.6 조엔 — 큰 변화보다 증가세 유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지표다.
09/08	일본	통화량	—	12935883.0	억엔	예상치 없이 이전 12,935,883 억엔 — 통화량 증가세가 BOJ 긴축 경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09/09	중국	소비자물가(CPI)	— —	-0.1 0.5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이전 -0.1%, 전년비 이전 0.5% — 예상치 없이 여전히 낮은 물가가 PBOC 완화 여지를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09/09	중국	생산자물가(PPI)	—	3.5	전년비 %	전년비 예상치 없이 이전 3.5% — 생산자물가 흐름이 Caixin PMI 반등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다.

자료: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